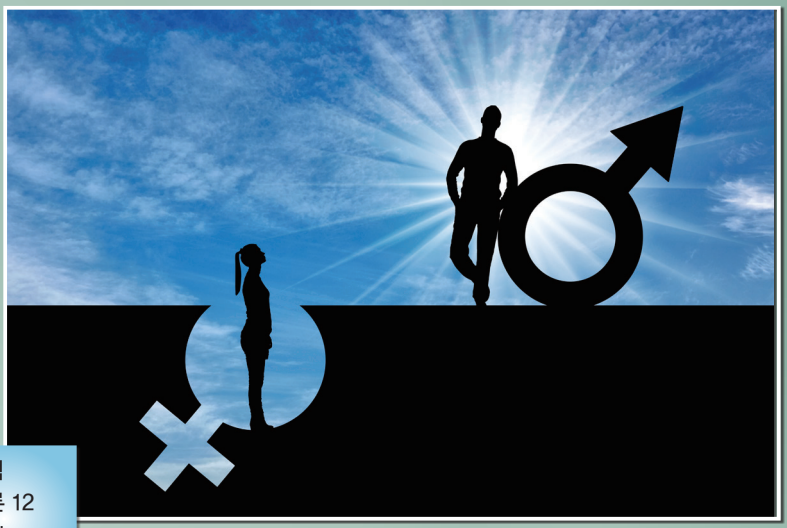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7 Number 06 06 2019



사회적 진화론 12 (Social Evolutionism)

성 차별

여성에 대한 다윈의 사고

1859년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 기본적으로 여성을 남성보다 훨씬 덜 진화된 존재로 여겼다. 먼저 여성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언급을 보면 쉽게 파악된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점이 너무나도 커서, 그토록 다른 존재가 한 종에 속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마치 완벽한 캥거루가 곰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이 터무니없는 것이다."

"동물 사육자가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선택하여 가축들의 형질을 결정하듯 남성이 성 선택을 통하여 여성의 진화를 이루었다."

"여성은 단지 성적인 매력이 우월하기만 하면 된다."

다윈은 남녀를 진화 과정으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성 선택을 통한 경쟁'을 남성 진화의 열쇠로 믿었다. 성 선택(Sexual selection)이란 동물이 자신의 짝에게 선택을 받기 위하여 모양이 진화되어 왔다는 진화 이론이다. 예를 들어 공작의 꽁지깃, 수사슴의 뿔 그리고 수사자의 갈기 등이 매력적인 것은 이성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인지 동물들도 그렇게 느끼는 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윈은 1871년에 쓴 〈인간의 유래(The Descent of Man)〉에서 이와 같은 성 선택을 인간에게까지 확장했다. 9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전체 분량 가운데 70페이지 정도를 인간의 성 선택에 할애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윈은 남성의 턱수염을 성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고 하며, 여성이 턱수염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턱수염을 가진 자들이 더욱 선택되어 남자가 턱수염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성 선택은 다윈이 자연선택을 설명하는 중요 요소였다.

특별히〈인간의 유래〉에서 여성을 진화론적으로 폄하하는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냈다.

"남성은 신체와 정신에 있어서 여성보다 더 강력할 뿐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다. 진화는 남성들의 손에 달려 있었고, 여성은 대부분 이에 대하여 수동적이다."

"북미 인디언의 관습을 보면, 약한 남성은 강한 남성 보다 매력적인 아내를 얻기 어렵다."

"호주 원주민과 같은 야만적 국가들을 보면 여성은 개인이나 부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기에 성 경쟁을 통해 성 선택을 야기시켰다."

"수소와 암소와, 수퇘지와 암퇘지, 종마와 암말, 원숭이 수컷과 암컷이 다르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슷한 차이점들이 인간에게도 존재한다."

"백인 여성은 백인 남성보다 너무도 열등해서… 과거의 낮은 단계의 문명에 있는 하등 인종들의 특징을 보인다."

실제로 다윈은 '대부분의 종에서 다 자란 암컷들은 그들의 새끼들과 닮았고, 수컷은 암컷들보다 진화적으로 더 발전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컷이 수컷보다 진화가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은 실질적으로 성장이 저해된 사람으로 결론 내렸다. 2002년 사망한 진화론자의 대부 격이었던 굴드(Stephen Jay Gould, 1941–2002)는 다윈이 '남성들이 자식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싸우거나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더 우수한 존재가 되었다'고 여긴 것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1800년도의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진화론적 사고의 영향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동물에 가깝다'고 여긴 것도 함께 지적했다.

진화론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덜 진화되었다는 자신들의 논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지지할 실증적 연구를 생산해 내야만 했다.
그리고 대부분 육체의 특징을 통해 설명하려고 했다.

다른 진화론자들의 말

프랜시스 골턴(Sir Francis Galton, 1822–1911, 영국, 다윈의 사촌이며 우생학의 창시자):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모든 능력에 있어서 열등하다."

오토 바이닝거(Otto Weininger, 1880–1903, 오스트리아, 여성문제를 다룬 진화론자, 히틀러가 딱 한 명의 살아남을 유대인으로 뽑음): "여성들은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영원히 탄압되어야 하는 사회적 기생충들이다."

다비드 에밀 뒤르카임(David Émile Durkheim, 1858–1917년, 현대 사회학 분야의 창시자):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하지 않으며, 이 차이는 문명화와 비례해서 커진다."

앨런 맥그리거(Allan McGrigor, 1827–1916, 영국, 인류학자, 다윈의 제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덜 진화되었으며, 여성은 일종의 어른 아이이고… 여성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깊고 창의적인 생각에 단 하나라도 기여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카를 포크트(Karl Vogt, 1817–95, 독일, 제네바 대학 자연사 교수): "어린이, 여성, 노망난 백인들 모두는 '성인 깜둥이'의 지적 특징과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지성과 인격은 갓난아이들과 '하등' 인종과 비슷하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하등 동물에 더 가깝고 사람보다 원숭이에 더 많은 유사성들을 가진다." 다윈은 포크트의 연구에 감명을 받았으며, 그가 자신의 옹호자 중 한 사람인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에드워스 코프(Edward Drinker Cope, 1840–97, 미국, 고생물학자): "수컷 동물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더 활발한 역할을 맡고 있다."

조지 로마네스(George John Romanes, 1848–94, 캐나다, 생리학자): 자연선택이나 성 선택에 과다한 능력을 부여했으며, 엄청난 자료를 통해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덜 진화했다는 다윈의 견해를 지지하는 많은 책과 논문을 썼다. 한 세대 동안 생물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죠셉 르콘테(Joseph LeConte, 1823–1901, 프랑스): 1800년대 후반 진화론의 선도 주자였으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들을 제한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은 논리를 필요로 하는 정치적이거나 다른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 여성 참정권에 반대했다.

진화론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덜 진화되었다는 자신들의 논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지지할 실증적 연구를 생산해 내야만 했다. 그리고 대부분 육체의 특징을 통해 설명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지적으로 약하며 아이를 낳는 기능에만 적합하다고 하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은 두개골과 커다란 골반을 가진 것으로 그리기도 했는데, 이는 여성의 열등함에 관한 진화론적 믿음을 반영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접근은 여성의 뇌용량이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우선적으로 두개골을 측정함으로써 여성의 두뇌 용량이 적다는 것을 보이려 했고, 이어서 두뇌 용량과 지성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려고 했다. 다윈 역시도 이런 접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정신적으로 다양한 능력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뇌는 확실히 커지게 될 것이다… 인간의 뇌가 고릴라나 오랑우탄에 비해서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큰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 더 큰 것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두뇌의 크기와 지적 능력의 발달 사이에 가까운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야만족과 문명인들, 고대인과 현대인들의 두개골, 그리고 전체 척추동물들의 비교에 의해 지지된다." 아래는 다윈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발언이다.

귀스타브 르 봉(Gustave Le Bon, 184–1931, 프랑스, 사회학): "가장 지능이 높은 인종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여성들은 대부분의 성인 남성 뇌보다는 고릴라 뇌의 크기에 가깝다. 이 열등함은 너무도 명백하여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 여성들은… 인간 진화의 가장 열등한 형태들을 대변하고… 문명화된 성인 남성보다는 어린아이와 야만인에 더 가깝다. 그들의 변덕스러움과, 모순, 무개념, 비논리 등…, 몇몇 성공한 여성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고릴라처럼 기형으로 태어난 예외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무시될 수 있다."

폴 토피나드(Paul Topinard 1830–1911, 프랑스, 의사며 인류학자): "남성들은 '미래를 위한 모든 돌봄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환경과 인간 경쟁자들과 투쟁해야 하기에' 그들은 '보호하고 돌봐야 할 여성들에 비해' 더 큰 두뇌가 필요했다."

폴 피에르 브로카(Paul Pierre Broca, 1824–80, 프랑스, 의사, 해부학자, 인류학자): "인간 두뇌의 크기가 '여자보다 남자가', '평범한 남자보다 뛰어난 남자가', '열등한 인종보다 우월한 인종'이 더 크다. 지성의 발달과 뇌의 크기 사이에는 놀라운 관계가 존재한다". 이에 진화론자 굴드는 브로카의 연구는 자신의 결론에 맞추어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조작했음을 지적했다.".

여성에 대한 진화론적 사고의 보편화

19세기 말 진화론자들은 여성의 열등함에 대하여 자연선택과 성 선택에 관한 다윈의 사고를 지지했다. 이들은 남성이 사냥, 전쟁과 같은 생존 투쟁과 아내를 얻기 위한 경쟁, 즉 성 선택에 성공한 남성이 오랜 세월 동안 선택되어 우월하게 되었으며, 역으로 여성들은 하찮고 반복적인 일을 해야 하는 가사만을 돌보았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성 선택에 훨씬 덜 영향을 받았다고 여겼다. 그리고 이런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견해는 다윈과 동시대에 살았던 과학계와 지성사회에 빠르게 퍼져 나갔다. 다윈은 아이들, 선천적 바보, 낮은 문화의 종족과 함께 여성들도 같은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런 그릇된 해석으로 인해 진화론자들은 여성의 열등함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다. 심지어 진화론자들은 그 남녀 간의 지적 간극이 너무 커서 어떤 이들은 두 성을 두 개의 다른 종 –남성은 호모 프론탈리스 (Homo frontalis), 여성은 호모 파리에탈리스 (Homo parietalis)–으로 분류할 정도였다. 여기서 사용된 종의 이름은 다른 영장류를 분류하는 정도의 차만큼 비슷했다. 다윈이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여성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는 당시 사회 분위기도 한 몫을 했지만, 다윈의 해석이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성 선택에 대한 비평

실제로 사회적 명성을 얻은 여성이 드문 이유는 진화 과정의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들이 그들에게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 하도록 제약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것과 고용되는 것이 법과 관습에 의해 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이미 여성차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보편화된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 이미 진화론적 사고가 내재되어있기 때문이다.

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사회에 두각을 드러내는 여성이 적다는 것만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를 선천적 능력으로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육체를 갖고 그 원인을 둔다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지난 세대에 서구 사회가 보여준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한때 증명되었다고 여겨졌던 여성의 열등함에 관한 대부분의 논쟁들은 결국에는 근거가 없음이 밝혀 졌다.

1970년 이래로 이런 여성의 열등함에 관한 다윈의 결론은 과학적으로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심각한 오류들이 밝혀졌다. 성 선택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연선택이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차별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우월하다고 하는 남성의 유전자는 자녀 모두에게 전달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성에 따라 유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Y 염색체 안의 유전자 외에는 부모 모두로부터 물려 받는다."

물론 현대 유전학이 여성이 열등하다는 진화론적 판단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겉보기에 Y 염색체 안의 유전자는 남성에게만 유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Y 염색체는 X 염색체에 비해서 훨씬 더 짧고 훨씬 더 적은 수의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여성들은 두개의 X 염색체들을 물려 받기 때문에 한 X 염색체에 해로운 열성 유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X 염색체 안의 건강한 우성 유전자에 의해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남성들은 X와 Y 각각 한 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기에 이런 이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성에겐 가려져서 표현되지 않는 많은 특징들이 남성에게는 표현된다. 좋은 예로써 색맹과 혈우병을 들 수 있다. 이런 유전 질환들은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서 더 빈번한데, 이는 여성의 경우 한 쪽 X 염색체의 해로운 열성 유전자가 다른 X 염색체의 건강한 유전자에 의해 가려지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건강하지 않은 유전형질들은 모계로부터 유전될지라도, 아들에게 더 잘 발현된다.

다윈과 당시 사람들은 유전학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다. 그러므로 다윈은 성선택을 통하여 획득된 형질들은 한 성에만 국한된다고 하는 그릇된 주장을 했다. 그렇지만 다윈은 부모가 자신의 형질을 자녀 모두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그의 글에서는 이 사실을 무시했다. 예를 들면 '천재성, 높은 상상력, 이성 등은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온전히 유전되어서, 결국에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게 되었다'고까지 주장했다.

다윈이 남성의 우월성을 받아들인 이유 중에는 어떤 '획득된 형질'이 다음 세대에 유전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견해 때문이었다. 이는 그의 사고에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결과이다. 즉 남성들이 근육을 키우거나 턱수염을 더 많이 기르면 다음 세대의 남성에게 유전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는 아우구스트 바이스만(Friedrich Leopold August Weismann, 1834–1914, 독일)에 의해서 결론이 났다. 그는 진화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생식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정을 통해서만 유전형질이 유전된다는 점을 증명했다.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멘델의 유전법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었다. 이 연구 결과가 출판된 지 오랜 후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획득 형질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새로운 과학적 연구들은 이런 가정이 틀렸음을 보여줘 왔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 우월성에 관한 진화론적 사고에 대한 철회가 과학이 아닌 시민 평등단체에 의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과학자들이 진화론적 편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 오히려 비과학자들이 객관적 사실들을 먼저 간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사고가 단지 진화론의 등장만으로 비롯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이미 여성차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보편화된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 이미 진화론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초월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었을 때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만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의 결과이다. 한편 성경은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관계로 표현한다. 그만큼 서로가 완벽한 보완 관계인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5:24–25)."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참고문헌

Bergman, Jerry, Darwin Effect, Master Book, 2014.

Darwin, Charles, The Descent of Man, 1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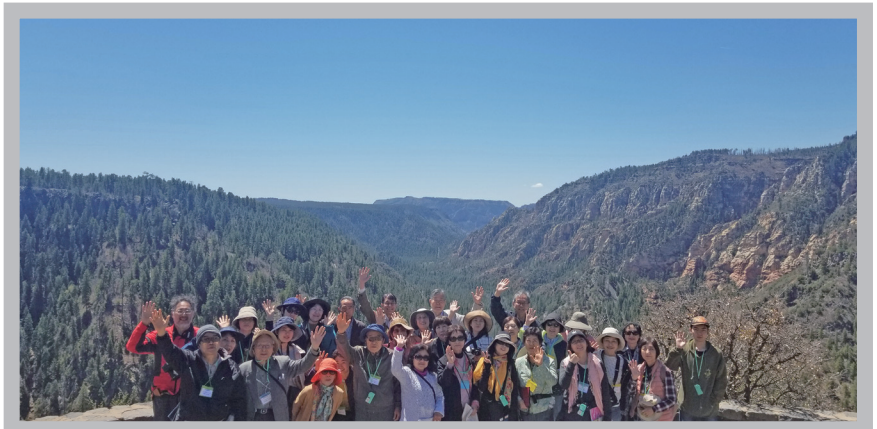
Gould, Stephen Jay, Full House: The Spread of Excellence from Plato to Darwin, Three Rivers Press,1996.

창조과학탐사

4월에 접어들며 창조과학탐사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네 팀이 참석했습니다.

송현성결교회

지난 4월 8-18일 인천 송현성결교회(담임목사 조광성)에서 10박 11일 동안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긴 일정인 만큼 각 경유지를 모두 돌며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어른들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접하며 확신을 가지며 자신과 이 세상이 얼마나 진화론적 사고로 갇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데 진화론이라는 걸림돌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현 교회 상황을 공감했습니다.



일본인

인천 송현성결교회

우사미마사미, 우사미미노르와 함께

일본인

지난 4월 21-25일 일본인들이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일본은 1877년부터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왔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진화론을 가르친 나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859년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었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진화론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창탐에는 일본 창조과학을 시작하신 우사미 마사미와 현 일본창조과학 회장인 우사미 미노루도 함께 했습니다(사진). 내년부터 일본 창탐은 우사미 미노루가 진행합니다. 일본 창탐이 잘 이어지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미래연구소

기독교 미래 연구소

지난 4월 29일-5월 6일 기독교 미래 연구소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이 5회인데 52명의 목사님 내외가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참석하신 목사님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유신론적 진화론의 문제점을 분명히 확인하시는 기회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하신 목사님들께서는 창조와 그리스도를 교인들께 더욱 분명히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칼빈 국제 신학교

지난 5월 1-5일 김낙경 박사가 인도한 칼빈 국제 신학교 동창생 부부동반 창조과학 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첫날 LA공항을 출발해서 Kingman,AZ에서 1박하고 둘째 날 세도나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배움과 평소 가졌던 질문에 대한 질문/토의가 첫 날부터 날카롭고 뜨거웠습니다. 첫날 저녁강의 "나는 누구인가" 강의 후에는 연대기와 노아 홍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그 질문들은 다음날의 배움과 깨달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마지막 날 까지도 계속되어서, 탐사 내내 열띤 질문과 토의, 그래서 결국 깊은 깨달음과 눈물 나도록 감동적인 은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목회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창조주", 세상 학문과 타협해온 교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영문을 몰라 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칼빈국제신학교

별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을까?

미시간 대학의 뉴스는 은하 먼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별의 생성을 조절하는지에 대해 다루며, "우리의 은하는 매년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별을 생성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창세기는 "또 별들을 만드시고…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하나님이 "넷째 날" 별들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별들이 아직도 형성될수 있을까?

이를 논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부분의 세속적 천문학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별들이 매년 태어난다고 믿게끔 하는 증거들을 살펴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망원경을 사용해서 별이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것을 실제로 관찰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새로운 별이 "켜지는" 것을 관찰한 적이 없다.

세속적 천문학자들은 결론을 내릴 때, 직접적인 관찰 대신 동일과정적 논리를 사용한다. 동일과정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대신,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자연적 과정이 만물의 기원을 설명한다고 가정한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고가 교회로 침투할 것이며 신자들로 하여금 말씀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을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만물이 태초에 형성된 대로 계속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창조와 대홍수의 기적을 역사로부터 제거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베드로후서 3:3 – 4). 이러한 철학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천문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스 소용돌이가 우연히 별로 되었다고 믿는다.

푸른 별들은 백만 년 이내에 다 타버린다. 그러나 세속적 천문학자들은 은하가 수십억년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푸른 별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새로운 별들이 계속해서 형성된다는 개념을 차용한다. 우리 은하 전체에 있는 별들의 특정한 숫자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들은 적어도 매년 하나의 새로운 별들이 생겨야 한다고 계산했다.

이러한 논리는 별들이 특정한 속도로 형성된다고 결론내리기 이전에 별들이 오늘날에도 형성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선결문제 해결의 오류를 범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어떤 증거에 접근하기 이전에 이미 동일과정적 철학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하가 몇 십억 년 전에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하는 믿음은 과학이 아닌 개인적인 편견으로부터 나온다. 만약 우리의 우주가 그렇게 오래 되었다면 오랜 시간에 걸쳐 사멸한 별들로부터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초신성 잔해들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최근에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은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몇몇 초신성 잔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이 우주를 단지 몇 천 년 전에 창조하셨다면, 그 모든 푸른 별들이 폭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우리가 우주에서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수의 초신성 파편을 관찰한다고 하는 사실과 왜 우주에는 이토록 많은 푸른 별들이 아직도 빛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물리학은 가스 입자들이 자연적으로 뭉쳐서 푸른 별들이 된다고 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ICR 천체물리학자인 제이슨 라이엘(Jason Lisle,Ph.D.)은 최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가스를 압축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전형적인 성운에서, 가스 압력은 미세한 중력보다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별들이 아직도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몇몇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새로운 별이 켜지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는가? 만약 별들이 자연적 힘에 의해 스스로 형성된다면 어떤 자연적 힘이 바깥쪽으로 퍼져 나가는 가스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만약 별들이 실제로 오늘날 형성되고 있지 않다면 푸른 별들로 가득 찬 은하들은 백 만년 이상 되지 않았다고 여겨져야 하지 않은가?

즉, 오늘날 별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먼지입자의 상호작용이 별의 형성을 조절할지 모른다는 모델링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동일과정적 사고를 제거한 후 은하수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별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창세기에서 말하는 별의 형성이 옳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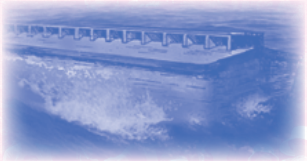
(Brian Thomas, Do Stars Still Form Today?, Ph.D , ICR , 2015) *번역 / 이충현*

창조과학탐사

한동대학교
7/16 ~ 7/22, 2018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창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위에 노아 홍수 심판의 흔적들과 그 속에 집요하게 파고든 세상의 논리,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이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와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세상 가치관으로 보는 진화론의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참 성경의 말씀을 사실과 진실로 알고 믿기 힘든 세상 속에서 창조과학탐사를 통하여 창조와 심판의 흔적들을 실제로 보고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창탐을 통하여 느낀 점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닌 세상을 구원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노아 홍수 심판사건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창탐이었습니다.



〈영천동문교회/최상길장로〉

이번 창조과학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와 홍수 구원의 흔적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준엄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크신 은혜와 신비로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그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크신 열심을 찬양합니다. 〈푸른숲성산교회/최혜봉〉

전도할 때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할 때 성경이 사실이다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창탐을 통해 나의 믿음과 성경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성경을 볼 때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될 것 같다.
〈온누리교회/김기석교수〉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세계에 대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
지으신 세상 속에 인간의 모습들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간다.
아는 것을 쏟아내는 말씀의 진리를 살아내는 것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하고 감사를 올려드린다. 〈헤세드교회/유기선〉

'창조과학탐사' 무엇을 탐사하게 될까? 그것의 답은 창조과학자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원리에 대한 발견일 뿐인 것을 명확히 알게 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뉴저지초대교회/오선호〉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축복의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강의를 늘 해 왔지만 막상 아내와 아이들에게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가족이 함께 와서 배우고 토론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신 이재만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동대학교/정진호〉

한동대 창조과학탐사 프로그램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진화론 시대에 진화는 그릇되고 하나님의 창조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실 자체가 큰 도전이고 어려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명쾌하고 자세한 설명으로 큰 은혜를 끼치신 이재만 선교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한동대학교/서병선〉

사역일정

2019 ACT Schedule

6/2-7	창조과학탐사 (대전온누리교회), 이재만
6/8	창조과학세미나 (순회선교단), 이재만
6/10-15	창조과학탐사 (뉴욕인투교회), 이재만
6/17-21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 이재만
6/18-21	창조과학탐사 (KPCG), Bill Hoesch
6/24-7/1	창조과학탐사 (새로운교회), 이재만
7/2-7	창조과학탐사 (선한목자젊은이교회), 이재만
7/3-6	창조과학탐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재만
7/9-12	창조과학탐사 (성남금광교회), 이재만
7/10-13	창조과학탐사 (LA소망장로교회 EM), 김선욱
7/15-21	창조과학탐사 (한동대학교교수), 이재만
7/24-27	창조과학탐사 (동산고등학교),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